

<2018년 11월 1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을 알아주고, 믿어 주고, 인정해 줘야 하나님은 자꾸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 행하심을 밝히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과 표적을 보이신다.
2. <지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었다. 왜? 하나님을 믿어 주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행해 줘야 하나님도 자신을 나타내시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못 했기 때문이다.
3.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 주니, 더 많은 것을 보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믿어 주지 않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사람들이 따르느냐?” 하면서 오히려 의심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능력과 표적을 보이지도 않으시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셨다. <이 시대>도 그러했다. 이 시대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보여 주지, ‘믿지도 않은 자들’에게는 보여 줄 필요가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이는 마치 허공에 씨 뿌리기와 같다.” 하셨다.
4. <주>는 허공에 발을 내딛을 수가 없다. <주>를 믿고 따름으로 그의 발판이 되어 주고, 그의 첩경을 예비해 주고, 평탄케 해 줘야 된다.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다.

5. <하나님의 길>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펴는 것도 ‘사람’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행하는 것도 ‘사람’이다.
6.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다 이해하기 어려우니, ‘사람들의 인생 살이’를 보면서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하고 생각하면 쉽다. <사람>도 누가 자기를 속상하게 하면, 하고 싶은 일도 안 해 버린다. 칭찬해 주고 알아주고 좋아하면, 능력을 보이고 재주를 보이면서 한다. <짐승>도 마찬가지다. 잘해 주면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뛰고 달리면서 표적을 보여 주지만, 그러지 않으면 안 보여 준다. <하나님>도 자신을 좋아해 주고, 사랑해 주고, 맞장구치며 알아주는 자들에게는 늘 애인같이 대해 주시며 한없이 보여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7. <메시아>는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모시고, 섬기니 하나님은 그에게 더 보여 주시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신 것이다.
8. 하나님은 허공에 발을 내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구 세상 떠나면 곳에 발길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보낸 자, 그의 발판’이 있기에 이것 하나를 보고 발을 내딛고 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구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발을 내딛으신다. 선지자들, 중심인물들, 사사들도 모두 ‘하나님의 발판’이었다.
9.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니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행하심이며 능력이시다. 그러나 사람들이 끝끝내

안 믿고 사망으로 가 버리면,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어쩔 수가 없구나.” 하신다.

10.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랑’ 으로 인간을 늘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런데도 인간이 전혀 자기 책임을 안 하고,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신은 없다.” 하며 무지로 대 하면, 그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하신다. 마치 <태양> 이 ‘별들’ 을 아무리 사랑해도, <태양>은 자기 위치를 떠나서 떨어지는 별들을 잡아 줄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절대적인 법칙’ 이 있다는 것이다.
11. 하나님은 ‘바늘귀’ 만큼이라도, ‘실 가닥’ 만큼이라도 하나님 과 연관되어 있으면, 그 끈을 잡고 놓지를 않으신다. 그마저도 외면하고, 안 믿고, 실 가닥 같은 끈을 끊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은 이 정도 단계까지 보고 행하신다. 더 이상 능력을 보일 수 없을 때까지 하신다. 그런데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으니 어떡하겠느냐. 등을 돌리고 갔는데 혼자 무엇을 보여 주겠느냐. 더 이상 능력을 보여 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12. <예수님>도 믿지 않음으로 인해 거기서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했다. 믿어 주고 좋아하고 사랑했으면, 자꾸 나타나 시고 한 없이 능력을 행하셨을 것이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좋아하니, 예수님은 자꾸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셨다.

13. <거슬리는 말>을 자꾸 하면, 하다가 말을 돌린다.
14. <갈 길> 중에 가장 많은 길이 ‘사람의 말 길’ 이다.
15. <하나님의 길> 중에 많은 길이 ‘하나님의 말 길’ 이다.
16. 하나님은 대하는 대로 ‘말 길’ 을 이리 돌리시고, 저리 돌리시며, 수만 가지로 돌리신다.
17. <길을 돌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 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 이다. <주의 잘못>이 아니라 ‘주를 대하는 자의 잘못’ 이다. <하나님>도, <주>도 대하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이다.
18. 지난날의 모든 것을 볼 때도 <시대의 주인>을 두고 이렇게도 알고, 저렇게도 알고 오해했다. <주인>은 상대가 대하는 대로 더 줄 수도 있고, 더 못 줄 수도 있다. - 이는 주인이 정한 대로다.
19. <하나님>은 ‘시대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 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과 한 몸 된 주인’ 이다.
20. <하나님>을 믿어 주고, <주>를 믿어 줘야 ‘행하는 일’ 을 말 씀하시게 보여 주신다. 믿어 주지 않으면 있어도 보여 주지 않으시니, 주인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도,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

21. 하나님은 ‘시대 신부들’ 에게만 그 행위대로 자꾸 나타나시어 엄청난 표적을 보여 주셨다.
22.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알아주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래. 해 줄게.” 하신다. 그 한마디면 일개 나라의 국력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못 한다. 인간은 뼈가 닳도록, 몸이 닳도록, 지구가 닳도록 해도 5%, 10%밖에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23. <한 사람>만 알아줘도, 하나님은 ‘곧 터지는 전쟁’ 을 거두신다.
24. <가정>에서도 부모가 아무리 화내고 분노해도 자녀들 중 ‘부모의 심정과 마음’ 을 한 명만 알아주면 더 이상 그같이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너한테는 내가 꿈쩍을 못 하겠다. 내가 나서면 화난 마음이 일순간에 그냥 없어진다.” 한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하나님의 분노>가 지구촌의 화산같이 터지려고 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있으니, 곧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다. <사랑하는 자>만 막는다. 다른 사람은 막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오직 ‘사랑’ 으로 막는다.

◎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25. 1973년쯤, 선생이 경기도 광주에 있을 때였다. 그때는 한창 노방 전도에 불이 붙어서 <시대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었다. 한번은 한 공원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유모차를 끌고

나온 한 여자가 있었다. 그때 성령님께서서는 그 여자를 예쁜 천사같이 보이게 하시면서 전도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선생은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으랴.’ 하고 계속 다른 생각만 했다. 결국 전도를 못 하고 주변만 맴돌다가 돌아오게 됐다. 그날 밤, 지나다니는 길을 따라 걸어오는데, 어디서 “사람 살려!”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 보니, 어떤 건장한 남자가 도끼를 들고 여자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때 그 남자가 선생을 보고는 “너는 누구냐? 네 놈이로구나!” 하면서 나를 보고 그 도끼로 찍으려고 했다. 그 즉시 그 남자의 손을 붙잡고 저지시켰다. 얹혀 놓고 보니, 모르는 남자였다. 소리 지르던 사람은 그 남자의 부인이었다. 그런데 불이 켜진 데서 보니, 그 여자는 낮에 공원에서 봤던 여자였다. 남자를 얹혀 놓고, 무슨 일이 있기에 도끼를 가지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말 좀 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큰형의 집으로 가는 길인데 어디서 사람 죽어 가는 소리가 나서 강도가 들어온 줄 알고 뛰어 들어왔다고 했다. 그러니 남자는 화를 가라앉히고 미안하다고 했다. 사연을 들어 보니, 자기는 원래 강원도에 살았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서 서로 사랑했다고 했다. 그런데 부모님이 말려서 결국 이곳 경기도로 도망쳐 나왔다고 했다. 그래서 둘이 잘 살아 보자고 하며 악착같이 살고 있는데, 항상 일을 끝내고 와 보면 여자가 없었다고 했다. 이를 자기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바람피우는 것이다. 그것을 눈치 못 챘느냐? 봐두면 안 된다. 벌써 끝난 것이다.” 하기에 너무 원통하고 분통해서 도끼를 들고 온 것이라고 했다. 재판을 할 때 원고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피고의 이야기도 들어 보듯이 여자의 이야기도 들어 보자고 했다. 그랬더니 그 남

자도 알겠다고 했다. 여자는 부부간의 싸움은 아무도 못 말린다는데 이렇게 말려 줘서 고맙다고 했다. 안 그랬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자에게 왜 집을 비웠냐고 물으니, 자기는 남편을 마중나간 것이라고 했다. 찌개도 끓여 놓고 기다리는데 하도 안 오니, 나가서 계속 그 주변에서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때 여자는 남편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던 때였던 것이다. 그때 전도했어야 했는데 못 한 것을 알고 ‘내 잘못이구나.’ 했다. 결국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서로 오해한 것이었다. 이를 듣고 나도 전쟁터에서 서로 오해해서 서로 죽일 뻔했다고 하면서 “극적인 사랑에는 극적인 오해가 있다.” 하고 이야기해 줬다. 오해가 풀리니, 서로 붙잡고 울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잘 살겠다고 했다. 그 후에 들어 보니, 그날 저녁에 자기를 말려 줘서 아내를 죽이지 않고 살았다고 했다. 자기는 의식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다. 그 판국에 나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자기 아버지도 옆에 있었는데 못 말리고 아무도 못 말리는데, 선생이 끼어들어서 해결한 것이다. 이같이 극적인 상황을 많이 겪었다. 깊은 것은 말하지 않지만, 믿어 주고 알아줘야 된다. <믿어 주는 사람>에게는 속 이야기를 해 준다.

◎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이 됐으니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